

축사

오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을 나누는 이 자리의 동참 대중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불교의 본질인 보살행을 실천하는 의미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고통을 없애고 대자유를 증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이는 너와 내가 따로 없는 불국정토를 건설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장애인이 곧 나”라는 생각으로 나의 몸처럼 이해하고 인식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수화사랑음악회를 개최하신 해성스님께서서는 오래전부터 청각장애인들에게 정성 어린 관심과 자비이타행을 몸소 실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과 직업재활사업,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하나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불교 장애인 복지 발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화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원을 운영하여 육체적인 장애를 딛고 체계적인 교육과 직업재활훈련을 통하여 우수한 꽃누름 압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면서 고용창출효과도 크게 증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더 많은 장애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내어 해성스님의 자비이타행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화원 가족들의 소박한 희망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 갈 수 있도록 우리 불교계에서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 및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뜻 깊은 행사가 다른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적인 사례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해성스님과 연화원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원활동을 해오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불기2555(2011)년 12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